

“공정한 조직·국민 안전체계 확립 최선”

백학선 제19대 서해해경청장 취임

기본·원칙 충실 현장 중심 업무

현장 밀착형 기술 혁신 등 강조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이 대우 받는 공정한 조직,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현장 중심의 서해해경을 만들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서해해경청 1층 대강당에서 백학선(55·사진) 제19대 경찰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백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료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 잘하는 사람이 정당한 성과와 보상을 받는 공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남해역의 복잡한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현장 중심 업무 ▲국민 중심 안전 체계 확립 ▲소통과 화합, 현장 밀착형 기술 혁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백 청장은 “변화가 빠른 바다에서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면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정확히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해양경찰의 가장 기본이자 변치 않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며 “보다 실질적인 훈련과 예방 중심 행정을 통해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반드시 해경이 온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장 밀착형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해해경의 진정한 힘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며 “소통 문화를 만들고,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현장 근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동료의 안전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백 청장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행동하자”는 자세로 청장인 저부터 가장 어려운 일에 앞장서겠다”며 “저의 솔선수범과 여러분의 책임감이 하나로 뭉칠 때 ‘신뢰받는 서해해경’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취임식을 마친 백 청장은 곧바로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서·남해역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서울 출신인 백 청장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 간부후보 45기로 해양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서해도특별경비단장, 속조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류진표 조대여고 교사 ‘대입 진로진학지도’ 대상

교육부·대교협 주관 우수사례 공모전

3명 영예…비수도권 유일 ‘수상’ 쾌거

박선영 동신고 교사는 최우수상 수상

류진표 광주 조선평교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진로진학지도를 잘한 교사로 선정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



류진표 박선영

진표 조대여고 교사가 대상을, 박선영 광주 동신고등학교 교사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고등학교의 대입 진로진학

지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내실화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모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했으며, 전국에서 총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2명은 경기, 인천 소속으로 비수도권에서는 류진표 교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류 교사는 현재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부회장과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진학상담팀·진학정책

연구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대여고 3학년 진학부장 겸 ‘대입전문디렉터’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류진표 교사는 “올해 2·10월 시기별로 현장 맞춤형 자료집 제작, 학년 진학 스터디, 학생 질의응답 등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진학지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 동신고 박선영 교사는 올해 3학년 진학부장을 맡았으며, 광주진로진학지원단 대입제도연구팀이 추진 중인 대입 진학지도 자료집 ‘빛고을 진학대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연탄 나눔’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14일 “지난 12일 동구 지원2동 일원에서 한전MCS 광주전남지사 관계자, 서광주지점 임직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 장의 온기, 천 장의 희망!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직원 기부 프로그램인 ‘리브펀드’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지원을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3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 한전MCS는 연탄 1천장(120만원 상당)을 지원2동 내 난방 취약 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연탄 나눔에 참여한 임은아(18)양은 “연탄이 생각보다 무거워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를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부열 한전MCS 광주전남지사장은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공헌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권 광주동구자원봉사 센터장은 “연탄재를 합부로 차지 말라는 시인의 마음처럼 어려운 이웃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온기를 지역사회 곳곳에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재영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남도에 감사패 수여

전남도는 14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전남도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사회복지 현장의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시 매년 자부담액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 사회복지시설 3천123개소, 2만2천168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이달 기준 총 415건, 1억9천55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제1·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총 922억원 규모, 32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처우 향상과 복지 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김재정 기자



완도 청산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전달

완도군은 14일 “전날 청산면 새마을부녀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관·단체를 비롯한 재광향우회, 재경향우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부녀회원들과 봉사자들은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 900여포기를 독거노인 가구와 경로당에 전달했다.

행사를 후원한 윤풍식 재광향우회 고문은

“고향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순자 새마을부녀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전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회원들과 함께 사랑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경란 청산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고향 사랑을 실천해 주는 향우회와 부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재난안전업무’ 우수

국립광주과학관은 14일 “재난안전업무 전반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은 사례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5월26일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한 점이 이번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관람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경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정구 관장은 “이번 표창은 과학관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값진 성과”라며 “ISO45001 인증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안전보건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안전한 과학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진 기자



김용기 나주청년회의소 56대 회장 취임

김용기 나주청년회의소(나주JC·사진 오른쪽 서다섯 번째) 제56대 회장이 취임했다.

나주JC는 지난 1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에서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임성환·박소준 나주시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6대 나경두 회장이 이임하고 56대 김용기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회장단에는 김성철 상임부회장, 이정훈 내부부회장, 안정석 외부부회장, 김민한·한성현 감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용기 신임 회장은 “나주를 대표하는 청년단체로 회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화합을 통한 진정한 지역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연제나 회원을 중심으로 두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나주JC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태평염전·(주)태평소금

파란꿈아동센터 김장김치 지원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신안 증도 태평염전·(주)태평소금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했다.

14일 광주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따르면 최근 태평염전·(주)태평소금이 김장김치 100박스를 지원했다.

해당 김장김치는 광주 지역아동센터에 배분해 소외계층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영숙 파란꿈지역아동센터 대표는 “매년 이어지는 김치 나눔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